무안국제공항 5개월만에 기지개 29일부터 제주 노선 주 4편 운항

제주항공 부정기 운항…이용객 추이따라 정기선·증편 검토
화물기 등 국내선 활성화…국제선 대비 기반·편의시설 확충

코로나 19 영향으로 5개월째 닫혀있던 무안국제공항이 이달 말부터 항공기 운항을 재개한다. 무안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으로, 전남도와 한국공항공사는 화물기 유치 등 공항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8일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전면 중단했던 무안~제주 간 노선을 오는 29일부터 다시 운항한다"고 밝혔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이 무안~제주 노선을 주 4편(목금, 일월) 부정기로 우선 운항하고, 이용객 추이에 따라 정기선 전환과 증편도 검토키로 했다.

시간표는 목요일 오전 7시35분 제주→무안, 금요일 오전 7시10분 무안→제주, 일요일 오전 7시30분 제주→무안, 월요일 오전 6시40분 무안→제주이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전년보다 68%의 이용객 상승률을 보이며, 연 이용객이 90만명을 돌파하며,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서 위상을 다져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운항 재개를 위해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무안공항 활성화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남도는 앞으로 제주항공과 공동으로 관광 전남을 알리고, 무안국제공항 운항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5월 중 '남도 여행 보물찾기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우선 국내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극복 후 국제선 재운항에 대비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준비를 다 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에 집중된 화물기를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공항으로 분산토록 요청하는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광주지역 17개 대학 총장 등과 지역대학 위기대응 및 대학발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기의 지역대학 살리기 머리 맞댄다"

광주시·시의회·시교육청·지역대학 업무협약… 대학발전협력단 운영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지역 17개 대학이 지역대학 위기 대응에 함께 나선다.

광주시는 8일 시청에서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광주지역 17개 대학들과 지역대학 위기대응 및 대학발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대학 위기대응 및 대학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광주시 대학발전협력단'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학발전협력단 총괄 운영은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광주시가 맡고, 시교육청과 지역 대학들은 실무인력을 파견·지원한다.

각 기관은 대학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활동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지역연계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또 대학, 학문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대학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힘쓰기로 했다.

특히 참여 기관은 인공지능, 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광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과정 특성화를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 확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사회가 산다는 생각으로 대학의 문제에 대해 광주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관내 17개 대학이 함께 대학발전협력단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며 지역대학 육성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코로나 확진자 700명 안팎…4차 유행 우려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예정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면서 '4차 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탓에 하루 300~400명대를 오가던 신규 확진자는 600명대까지 치솟은 상태다.

특히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동시다발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다시 1천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일단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전국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방역조치 조정안을 9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7면〉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8명이다. 직전일(478명)보다 190명이나 더 많다. 600명대 확진자는 지난 2월 18일(621명) 이후 48일 만이다. 668명 자체는 국내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진정 국면에 접어들기 직전인 올해 1월 8일(674명) 이후 89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647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의 606명보다 41명 많았다.

밤늦게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는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700명 안팎 내지 700명대 초반에 달할 전망이다. 직전일에는 오후 9시 이후 62명 늘어 668명으로 마감됐다.

최근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연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51명→557명→543명→543명→473명→478명→668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544.7명꼴로 나왔다. 이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23.7명으로, 500명대에 진입했다. 이 수치는 지난달 10일(399.7명) 사실상 400명 선을 넘어선 이후 전날까지 4주째 거리두기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시행 중인데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 들어온 지 오래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게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조처만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해왔는데 기존과 같은 대응으로는 지금의 가파른 환자 증가세를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도 전날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격상하거나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방역의 고삐를 한층 조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증상 있을 땐 즉시 검사 받아야 감염 확산 방지

광주 두달간 확진자 45% 유증상

광주시가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 완화로 유증상자의 진단 검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한 검사를 당부하고 나섰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2~3월 확진자 397명 가운데 178명(44.8%)은 유증상자였다. 무증상의 경우 의도치 않은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지만, 유증상자는 검사만 곧바로 받는다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은 강조했다.

광주에서 2월 발생한 보험사 콜센터(114명), 명절 가족 모임(23명) 등 집단 감염도 유증상자가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면서 규모를 키웠다.

전국적으로도 유증상자의 주점·피트니스센터 등 방문, 교회 예배나 소모임 참석, 출근 등으로 확진자가 불어나는 현상이 뚜렷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의 23%가 유증상자의 일상생활에 따른 집단 감염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설마 코로나19는 아니겠지', '감기일 거야'라는 심리와 증상의 불확실성 등이 맞물려 진단 검사가 지연되는 일을 방역 당국은 경계했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의심 증상자는 즉시 선별진료소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임야 삽니다 지분 환영
당일처리. 010-6837-4700

잘 안팔리는 전국 부동산 교환
하실 분. 010-3605-5000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악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종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홈플러스 길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대지급매
위치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면적 2,816㎡(851평)
금액 71억 (5월1일 이후 85억)
4월 30일까지만 추진합니다
문의 010-6432-5070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1년 3월 31일 조합원총회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1년 6월 10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4월 9일
한봉산영농조합법인
신안군 지도읍 원자동길 11-160
청산인 최 광 선

자본감소공고

2021년 4월 8일 주주전원의 동의로 자본의 총액 금460,000,000원중 금 23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을 금23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46,000주에 대하여 23,000주를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 46,000주를 23,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 익일부터 1월이내에 이의를 제출 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1년 4월 9일
석천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광로6길 20
대표이사 천재영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산행안내

4월11일(일)
▲광주kj산악회 4월11일(일) 대구 진달래명산&비슬산, 월광봉, 조화봉,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주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